



즉시 배포용: 2019년 8월 13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**CUOMO 주지사, 뉴욕주 노동부(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, NYS DOL) 및 맨해튼 지방 검사(MANHATTAN DA)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용접공과 철공에게 체불 임금 6백만 달러 반환 발표**

*노동부(DOL) 115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의 임금 반환건*

*고용주는 임금 절도죄를 인정했고, 중절도죄로 기소된 상태*

**AGL 인터스트리스(AGL Industries)는 절취 임금을 근로자 499명에게 반환할 예정**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노동부(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)와 맨해튼 지방 검찰(Manhattan District Attorney)의 건설 사기 태스크포스(Construction Fraud Task Force)의 합동 조사 결과 500명 가량의 용접공 및 철공에게 빼앗긴 임금 약 6백만 달러를 반환하는 내용의 감형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것은 노동부(DOL) 115년 역사상 단일로는 최대의 임금 반환 사건입니다. 해당 조사는 2018년 2월 맨해튼 지방 검찰(Manhattan District Attorney) 및 철공 로컬 361(Iron Workers Local 361)의 이첩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.

**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** "우리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근로자가 힘들게 번 임금을 체불하는 모든 기업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. 이 감형 거래에 따라, 우리는 AGL 인터스트리스(AGL Industries)에 그들의 사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수백 명의 용접공 및 철공에게 체불 임금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."

합동 조사 결과, 2013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퀸즈 카운티 마스페스에 위치한 AGL 인터스트리스(AGL Industries)가 근로자들에게 초과 수당 및 지급 임금에 대해 속이고 주정부에 거짓 재무 정보를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근로자들이 회사에 적은 임금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,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.

가장 기만적인 근무 환경과 만연한 착취에 시달리는 건설 근로자들에게 이 기념비적인 승리는 태스크포스(Task Force)가 가장 최근에 해결한 사건입니다. 태스크포스의 목표는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입니다.

이 건설용 강철 가공 회사는 3급 중절도죄(3rd Degree Grand Larceny)를 인정했고, 오년에 걸쳐 임금을 갚을 예정입니다. 첫 번째 150만 달러 지급은 8월 13일에 집행됩니다. 회사 간부인 Dominic Lofaso는 또한 중절도죄(Grand Larceny) D급(Class D) 중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

AGL은 총 625만 달러를 배상해야 합니다. 이 금액에는 임금 배상과 더불어, 뉴욕주의 실업 보험(Unemployment Insurance) 기금에 대해 260,855 달러의 기여금이 포함됩니다.

노동부(Department of Labor)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임금 착취와 사기는 뉴욕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. 그리고 법을 어기는 부정직한 기업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. 우리의 근면한 조사관과 맨해튼 검사들은 물론, 사기꾼의 존재를 밝히고 이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로컬 361(Local 361)의 제보에 감사드립니다."

Cyrus Vance 맨해튼 지방검사(Manhattan District Attorney)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이 상징적인 기소에 따라, 정당한 임금을 도둑맞은 근로자들은 약 6백만 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. 수백 명의 철공 및 용접공들은 이제 검찰의 건설 사기 태스크포스(Construction Fraud Task Force)와 뉴욕주 노동부(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)의 노력에 힘입어 임금을 반환받게 될 것입니다. 태스크포스는 창설 이후 노동자들에게 약 740만 달러의 임금을 반환했습니다. 우리는 모든 업계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며, 특히 건설 업계에 만연한 임금 착취와 투쟁하고 있습니다. 임금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왓츠앱(WhatsApp)의 (646) 712-0298로 태스크포스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 익명으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."

철공 로컬 361(Ironworker's Local 361)의 Matthew Chartrand 비즈니스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노동 지도자로서 노동자들이 잘못된 처우를 받을 때 모든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. 건설 사기 태스크포스(Construction Fraud Task Force) 및 노동부(Department of Labor)의 훌륭한 팀 덕분에, 건설 업계의 불량한 기업 중 하나가 정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.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훌륭한 성과입니다!"

2018년, 뉴욕주 노동부(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)는 약 3,500만 달러를 되찾아 임금 체불 및 공공 근로 위반 피해를 입은 근로자 35,000여 명에게 돌려주었습니다. 2011년부터 노동부(DOL)는 약 3억 달러의 임금 체불액을 고용주에게 사기를 당한 280,000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환했습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